

한국 사이클의 미래... 요로결석 고통 속 대기록

체전 스타 - '전남 고교 선수 첫 5관왕' 전남체고 사이클 김채연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 출전에 금메달을 따고 싶습니다”

한국 사이클의 기대주 김채연(18·전남체고 3년)이 전국체전 5관왕에 올랐다.

13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김채연이 전남 소속 고교선수로는 처음으로 5관왕에 올랐다.

전남 성인부에서 5관왕(광양시청 불링 최복음)이 배출된 적은 있으나 고교 선수로는 처음이다. 이번 체전에서 수영스타 황선우도 5관왕에 오르지 못했다.

김채연은 지난 11일 강원 양양 일대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사이클 여자 고등부 도로 개인독주 15km 결승에서 22분20초7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전날까지 스프린트, 500m 독주, 단체스프린트, 4km 단체추발까지 금메달 4개를 땀던 김채연은 다

섯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채연은 내친김에 개인도로 결승, 개인도로단체 결승에 출전할 계획이었다. 대회 7관왕이다.

하지만, 도전을 멈췄다. 김채연은 요로결석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전국체전 때문에 본격 치료를 받지 못했다. 고통속에서 5개 금메달이 나왔다.

결국, 나머지 두 종목 출전을 앞두고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다.

김수연 전남체고 코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출전하겠다’는 김채연의 고집을 꺾었다. 나머지 경기를 포기하고 병원 치료를 받기로 했다.

김채연은 올해 최고의 해를 보내고 있다. 올여름 아시아와 세계 무대 모두에서 정상에 섰다.

6월 주니어 아시아선수권대회 여자 500m 독주에서 우승한 지 두 달여 만에 국제 대회 금메달을 또 하나 추가했다.

지난 8월 열린 2022 국제사이클연맹(UCI) 주니어 트랙 사이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여자 500m 독주 결승전에서 클라라 슈나이더(독일), 질리 니콜

수영 4관왕 황선우 기록 뛰어넘어 투척종목 성적 못내 운동 포기 생각 중2 때 사이클 전향 후 재능 발휘

1년만에 한국기록 깨 비약적 성장을 주니어 아시아·세계무대 석권 “올림픽 출전에 금메달 따고 싶다”

라에스(벨기에)를 누르고 챔피언에 올랐다.

내년 새 주니어선수권 대회가 열릴 때까지 UCL 주관 대회의 500m 독주 종목에 출전할 때마다 UCL의 ‘월드챔피언 저지’를 입고 나서는 영광도 누린다.

김채연은 나주중앙초, 전남체고를 거쳐 전남체고에서 운동하는 전남 토박이다.

초등학교 때 재능을 보여준 체육중학교 교사의 권유로 체육중학교에 진학했다.

투척 종목(창던지기)을 선택했으나 성적을 내지 못했다. 고전하던 김채연은 2학년 때 사이클로 전

향했다. 초등학교 때 자전거를 곧 잘 타던 모습을 기억한 교사의 조언 때문이었다.

김채연은 “당시 너무나 실망해 운동을 포기하려고 마음먹었다”고 회상했다.

김채연은 불과 1년만에 한국기록을 깨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사이클로 전향한 해 전국 소년체전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땀다. 중학교 3년때는 도로독주 1km 중학교 한국기록(1분17초)을 16초대로 앞당겼다. 무려 18년만의 신기록이었다.

김채연의 주종목은 스프린트, 500m 독주. 현 국가대표 선수들과 겨뤄도 손색없는 실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주 출신 사이클 스타 나아름의 뒤를 이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한국 사이클계는 “모처럼 물결이 나왔다”고 반기고 있다.

김수연 전남체고 코치는 “근성, 지구력 등 사이클 선수로서 모든 것을 갖춘 선수다. 훈련이 힘들어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버티는 근성은 따라올 선수가 없다”며 “지금까지 보다 앞으로 더 기대되는 선수”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국체전 사이클 5관왕 김채연.

모두가 제몫 해냈다...광주·전남 선수단 선전

전국체전 폐막...다관왕 잇단 배출 광주 12위...전남 목표 초과 13위

광주·전남 선수단이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선전했다.

광주는 7일 폐막한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7개, 은메달 45개, 동메달 73개 등 총 155개의 메달을 획득, 종합 12위에 올랐다. 광주는 2회 연속 3만점대 득점(3만5515점)을 획득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이같은 성적은 경기력 유지를 위한 선수·지도자의 노력 등이 어우러진 결실로 분석하고 있다.

양궁 오예진(광주여대 1년)은 50m, 개인전, 단체전, 혼성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며 4관왕에 올랐고, 근대5종 전용태(광주시청)와 체조 문진영(광주체고 1년)은 3관왕을 차지했다.

근대5종 김경환(광주시청), 궁도 김연수(광주시체육회), 양궁 이진용(조선대 4년), 핀수영 양현지(광주체고 2년)가 2관왕에 올랐다.

육상 오재혁(광주체고 3년, 해머던지기)이 58m39, 김국영(광주시청, 200m)이 20초73, 김찬송(광주체고 2년, 100mH)이 14초52로 개인 신기록을 경신했다.

전남은 금메달 49개, 은메달 44개, 동메달 52개 등 총 155개의 메달을 수확, 애초 목표를 초과 달



광주 근대5종 선수들.

성한 종합순위 13위를 기록했다.

양궁 순천시청 단체전 종합우승, 댄스스포츠 종합우승 등 각종 종별 우승, 다관왕과 다연패 대회 신기록이 성적에 보탬이 됐다.

안영서(전남체고3년)는 사이클 3관왕에 올랐고 스크래치 부문 2연패를 차지했다.

‘육상계 슈퍼루키’로 떠오르고 있는 배건울(2년)과 양예빈(3년), 이은빈(이상 전남체고·1년)이 각각 4관왕, 3관왕, 3관왕을 차지했고, 4X

400mMR 혼성계주에서 나상우, 조운서, 양예빈, 배건울(이상 전남체고)이 3:32:19의 기록으로 3:33:83의 기존기록을 갈아치우며 고등부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역도에서는 조민재(전남체고 3년)가 인상113kg, 용상 145kg를 들며 합계 258kg으로 3관왕을 차지했다. 조민재는 소년체전 포함 5연속 3관왕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국내외 스포츠 전문가들 광주에 모인다

오늘 ‘스포츠도시 광주 국제포럼’...아시안게임 유치 전략 논의도

유승민 IOC위원, 양궁스타 기보배 등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스포츠 전문가들이 광주에 모인다.

조선대학교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조선대 이스포츠경기장에서 ‘2022 스포츠도시 광주 국제포럼’(Sport City Gwangju Forum, SCGF 2022)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조선대 스포츠과학연구소(소장 김민철 교수)와 스포티즘82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스포츠도시 광주’를 주제로 열린다.

행사는 국제 스포츠조직의 관점, 선수 관점, 시민의 관점(MZ공모전 발표), 학계 관점(학술대

회)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광주는 이번 포럼을 통해 스포츠도시로서 도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2038광주대구아시안게임 유치 성공을 위한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자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발표와 토론에는 IOC 레거시 총괄을 역임하고 있는 타니아 브라가(Tania Braga), IOC 전략기획 자문이자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상임 고문으로 활동한 알란 쇼(Alan Shaw), 국제축구연맹(FIFA) 토너먼트 부장 말리 플로레스

(Marley Flores)씨가 참석한다. 2019광주 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성공에 함께한 스포츠마케팅 전문가인 BCW(Burson Cohn & Wolfe) 스포츠 대표 라스 하우 페더슨(Lars Haue-Pedersen)씨도 토론자로 함께 한다.

문대성 전 IOC위원, 김세진 해설위원, 양궁스타 기보배가 선수 관점에서 바라 본 스포츠도시를 주제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민철 조선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특별세션에는 단국대 전용배 교수, 고려대 한남의 교수, 한국해양대 조우정 교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상훈 실장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포럼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2022 스포츠도시 광주 국제포럼 공식 홈페이지(https://scgf.kr/)에서 사전등록을 하거나, 행사 포스터의 QR 코드를 이용하면 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올해 세계양궁 ‘왕중왕’ 가린다

15~16일 멕시코서 월드컵 파이널 ...안산·최미선 등 태극궁사들 출격

올해 최고의 궁사를 가리는 2022 현대양궁월드컵 파이널에 안산(광주여대), 최미선(순천시청) 등 태극궁사들이 출격한다.

양궁 국가대표팀은 월드컵 파이널 출전을 위해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15-16일 멕시코 톨락스칼라에서 치러지는 월드컵 파이널은 올 시즌 월드컵 시리즈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다.

세부 종목별로 월드컵 개인전 우승자 4명, 월드컵 랭킹 상위 3명, 개최지 우수선수 1명을 포함해 총 8명이 출전한다.

2020 도쿄 올림픽 3관왕 안산은 4차 월드컵 개인전 우승자 자격으로 생애 첫 월드컵 파이널에 나선다. 최미선도 합류했다.

안산은 이번 전국체전에서 컨디션은 조울했다. 대학 입학 후 처음 치른 전국체전을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마치는 등 최고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

리커브남자 김우진(청주시청), 김제덕(경북일고), 컴파운드 여자 김은희(현대모비스) 등도 출전한다.

파이널 대회에 5명 이상의 선수를 출전시키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김우진은 남자 리커브에서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힌다.

김우진은 지난 5월 광주에서 개최된 2차 월드컵에서 우승하며 일찌감치 파이널 출전을 확정했다. 또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열린 4차 월드컵에서 다



안산

최미선

시 한번 개인전 우승을 차지하며 ‘최강자’의 위용을 뽐냈다.

김제덕은 월드컵 랭킹포인트 59점으로, 랭킹 3위에 올라 파이널행 티켓을 차지했다.

김제덕은 올해 처음 오른 월드컵 무대에서 기복 없이 좋은 성적을 냈다. 3차 파리 월드컵에서는 개인전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2016 리우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최미선은 올해 2차 월드컵에서 개인전 우승을 차지하며 국제무대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최미선이 월드컵 파이널에 출전하는 것은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최미선은 이 대회에서 2015년 금메달, 2016년 은메달을 따낸 바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81세에 76타...국내 첫 공식 에이지슈터 10명 탄생

나이와 같거나 적은 타수 기록

국내에서 에이지슈터 10명이 처음 공식 인정을 받았다.

골프 전문 월간지 골프매거진은 12일 충북 제천 킥즈락 컨트리클럽(파72)에서 스마트스쿠어 에이지 슈터 챔피언십을 열었다.

평균 연령 77세인 133명이 출전한 이 대회에서 모두 10명이 자신의 나이와 같거나 적은 타수를 치는 ‘에이지슈터’를 기록했다.

아마추어 골퍼가 에이지슈터를 이루려면 현실적으로 나이가 70세가 넘어야 가능하다.

골프 실력뿐 아니라 건강, 시간, 경제적 뒷받침이 따라야 하기에 아마추어 골퍼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골프의 완성’으로 꼽는다.

이날 이준기(81) 씨는 76타를 적어내 베스트 에이지슈터가 됐다. 자신의 나이보다 5타나 적은 타수를 친 것이다.

정경옥(67) 씨는 자신의 나이와 똑같은 67타를 때려 ‘최저타 에이지슈터’의 영예를 안았다.

그동안 국내에는 에이지슈터 공인 기록이 따로 없었다. 스마트스쿠어는 이날 에이지슈터를 기록한 10명에게 인증패를 전달했다. 공인 에이지슈터가 탄생한 셈이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정직한 후보2
티켓 투 파라다이스, 인생은 아름다워,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태평일학교
- 2관 대우가, 오판: 천사의 탄생
- 4관 오판: 천사의 탄생
- 5관 인생은 아름다워
- 6관 공조2: 인터내셔널
- 9관 공조2: 인터내셔널, 정직한 후보2
- 7관 씨네캐슬
티켓 투 파라다이스,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 8관 씨네캐슬
스마일, 극장판 헬로카봇: 수상한 마술단의 비밀, 고고다이노 극장판: 얼음공룡의 비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_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③
트리오 오원
일시 : 2022. 10. 17.(월) 19:30
장소 :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 062-613-8235



GAC기획_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④
몰토 콰르텟
일시 : 2022. 11. 7.(월) 19:30
장소 :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 062-613-8235

